

현대모비스, 독자개발 '연료전지 파워팩' 수소지게차 탑재

국내 최초 국가인증통합 취득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 시작 5분내 충전, 5시간 연속 사용 내년 대규모 플릿 운행 추진

현대모비스가 독자 개발한 이동형 연료전지 파워팩이 수소모빌리티 실증 사업에 본격 투입된다. 이를 계기로 산업과 건설기계, 대형 운송수단 등으로 수소모빌리티의 확장성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모비스는 30일 울산 KD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테크노파크, 현대제뉴인과 현대글로벌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료전지 파워팩을 탑재한 수소지게차의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킥 오프(Kick-Off)'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사업에 투입되는 5톤급 중형 수소지게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뉴인이 공동개발했다. 5분 내 급속충전이 가능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현대글로벌 울산 KD 센터에서 작업자가 수소지게차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하고 한번 충전으로 5시간 동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연료전지 파워팩은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발전기다. 최대출력이 50kW로, 한번 충전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정에

서 사용하는 5일 치분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연료전지스택과 냉각장치, 고전압배터리, 수소탱크 등을 통합한 일체형 시스템이다. 현대모비스가 양산 중인 수소

전기차의 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해 지게차용 연료전지 파워팩을 독자개발했다.

수소지게차 시범 운행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내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가능한 현대글로벌 KD 센터에서 진행된다. 현대글로벌이 담당하는 실증 운영 모니터링을 거쳐 주행데이터와 개선점 등이 현대모비스의왕 연구소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양산형 수소모빌리티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연료전지 파워팩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대규모 수소지게차 플릿 운영을 추진한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국내 최초로 이동형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가인증통합(KC)을 취득했다. 연료전지 분야의 KC 취득은 안전 기준과 시험평가 과정 모두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모비스는 수소산업의 안전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올해 초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인증통합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역시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에게만 수소 관련 실증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분야에서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민간 주도의 각종 수소모빌리티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범 현대모비스 연료전지사업실장(상무)은 "연료전지는 현대모비스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입증한 연료전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생태계를 확대 구축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안전 넘어 안심” 현대제철, 건설용 강재 선도

H CORE 프리미엄 브랜드 통해 가장 안심되는 최고급 강재 도약

국내 건설용 철강재 1위 기업인 현대제철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건설용 강재 분야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안전 넘어 안심'이란 슬로건 아래 건설분야 구조용 강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내진용 건축 브랜드 'H CORE' 브랜드를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시한 현대제철의 역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제철은 지진에 의한 건축물 붕괴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2017년 내진용 건축 브랜드 'H CORE(에이치 코어)'를 국내 최초로 론칭했다.

당시 H CORE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 개발에 주력했다. 일반 강재 대

비 에너지 흡수력과 충격인성, 용접성 등이 우수한 것이 특징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는 업계 평가를 받았다.

현대제철은 이후 고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화내진 복합강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자재량 절감을 가능케 하는 고강도 H형강 KS 제 공 규격 82종 외 94종의 다양한 규격 제품인 'RH+'를 론칭했고,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H형강 GR(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신규 획득하는 친환경 행보도 이어왔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에는 H CORE를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론칭했다. 철근·형강 등 내진 설계용 건설 강재에 국한됐던 브랜드를 후판·강관·열연 강관·냉연 강관까지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 관리를 넘어 설계부터 제작, 시공 단계 등 제작 전 과정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브랜드 전면에는 '안전을 심은 철, 안심 H CORE'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유관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새로운 H CORE가 안전을 바탕으로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강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새로운 H CORE의 주요 성능으로는 고강도와 내충격성, 내식성, 친환경성, 다양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고강도 제품은 범용 강재 대비 약 20~30% 강도가 높아 합리적인 강재량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연성 제품은 복합적인 외력에 유연하게 반응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 대처가 가능하게 특징이다. 내충격 제품은 극지방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깨지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능을 갖췄다. 내식성 제품은 오랜 비바람에도 부식되지 않고 최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맨홀 사고위험 요인 원격 모니터링 강화

SKT, 안전관리 솔루션 최적화 가스 의심지역 등 100개소 확대

SK텔레콤이 현장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맨홀 사고 위험요인을 스마트폰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자사 인프라에 적용한다.

SK텔레콤은 맨홀 아래 유해가스 농도나 온·습도, 침수·뚜껑 열림 여부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ICT 기술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맨홀 안전관리 솔루션을 본격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맨홀은 작업자가 굴착 작업 없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나 하수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시설이지만, 오래 밀폐된 맨홀의 경우, 내부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 작업자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맨홀 아래에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맨홀 아래로 사람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평상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SKT는 지난 4월 시범사업을 통해 통신 맨홀 규격과 설치 환경에 맞게 솔루션을 최적화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작업자들이 IoT 센서로 측정된 맨홀 내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SKT

가스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 깊이가 깊고 평상시 작업량이 많은 맨홀, 구(舊) 도심지 맨홀, 주요 통신시설 인근의 맨홀 등 100개소로 확대 적용했다.

맨홀 안전관리 솔루션에는 SK텔레콤의 AI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TANGO)'와 IoT 네트워크, SK윌더스의 지능형 융합보안 플랫폼 '씨미츠(SUMITS)', 사물인터넷(IoT) 전문 기업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센서 기술이 적용됐다.

/채윤정 기자 echo@

KT, 통신비 혜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립 캐시 통신비 최대 2만원 차감 제휴사·캐시 이용처 지속 확대 추진

KT가 업계 최초로 통신비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다.

KT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고 향후에는 통신 혜택, 금융 유틸리티 등 새로운 생활편의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본인인증 서비스인 'PASS(패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KT 모바일 고객은 PASS 앱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KT는 지난 10월1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획득했으며, 기본적인 금융자산 통합 조회 서비스에 더해 통신비 혜택까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KT 마이데이터 통신비 혜택은 KT 마이데이터와 제휴한 국내외 쇼핑 앱에서 결제하거나 제휴 서비스 구독 시 결제한 금액의 4%나 일정액을 캐시로 직

접하고, 적립된 캐시는 통신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차감하거나 KT 지니TV(Genie TV) 쿠폰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외 대형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며, 제휴사와 캐시 이용처는 계속 확대한다.

또 놓치기 쉬운 통신약정 만료일, 금융일정 등을 미리 고객에게 알려주는 '생활비서' 서비스, 신용정보를 손쉽게 보여주는 '자산관리' 서비스,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점수 부스터'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첫 출시는 오픈 베타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LGU+, 숙박할인·공연초청 프로모션

LG유플러스가 연말을 맞아 여행이나 공연 관람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국내 숙박 할인 및 공연 초청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고객별 맞춤형 혜택을 추천·제공하는 'U+멤버스 앱'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혜택 및 기능을 더해 '혜택 허브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와 협업, 국내 숙소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기로 했다. 기존에는 멤버십 VIP 이상 등급 고객 중 '여행족'을 선택한 고객에게만 야놀자 국내 숙소 예약 6% 할인 혜택이 제공됐지만,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야놀자에서 국내 숙소 예약 시 5% 할인을 이용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채윤정 기자